

2023년형 캐스퍼, 고물가 시대 '기똥차다'

GGM 생산 SUV 캐스퍼 신형 모델 출시

현대차, 실용성 높은 '디 에센셜 라이트' 새로 출시...핵심 사양 대거 적용 1490만원

밴 모델, 상위트림 '스마트 초이스' 추가...7 에어백 시스템·운전석 통풍 시트 '기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는 현대차 동차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 (사진)의 2023년형 모델이 출시됐다. 고물가 시대 실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3 캐스퍼'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현대차에 따르면 2023 캐스퍼는 경제성을 갖춘 신규 트림을 운영하고 새로운 외장 색상을 더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현대차는 캐스퍼에 실용성을 강조한 '디 에센셜 라이트' (The Essential Lite) 트림을 새로 출시해 총 4가지의 트림을 운영한다.

디 에센셜 라이트는 ▲운전석 통풍 시트 ▲1열 열선 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열선 포함) ▲버튼

시동 & 스마트키 ▲인조가죽 시트 등 운전자와 탑승자를 배려하는 편의 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현대차는 핵심적인 사양들을 대거 적용한 디 에센셜 라이트의 판매 가격을 1490만원으로 책정해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또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외장 색상인 '튤보이 카키'의 무광 버전 '비자립 카키 매트'를 새롭게 추가해 총 7가지의 외장 색상을 운영한다.

단일 트림이었던 캐스퍼 밴 모델에는 상위 트림인 '스마트 초이스'가 새로 추가됐다.

현대차는 스마트 초이스에 ▲7 에어백 시스템 (1열 센터 사이드 에어백 포함) ▲운전석 시트 암

레스트 ▲운전석 통풍 시트 ▲1열 열선 시트 ▲가죽 스티어링 휠(열선 포함) ▲버튼시동 & 스마트키 ▲인조가죽 시트 등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기존 기본 모델에서만 운영됐던 '스마트 플러스' 패키지를 밴 모델에도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

패키지 선택 시 ▲버튼시동 & 스마트키 ▲8인치 내비게이션(블루링크, 폰 프로젝트, 현대 카페인포함) ▲후방 모니터 ▲6 스피커 ▲풀오토 에어컨 ▲마이크로 에어 필터 ▲리어 와이퍼 및 워셔 등이 적용된다.

2023 캐스퍼의 판매 가격은 기본 모델 ▲스마트 1385만원 ▲디 에센셜 라이트 1490만원 ▲디 에센

셜 1690만원 ▲인스퍼레이션 1870만원이다. 밴 모델은 ▲스마트 1375만원 ▲스마트 초이스 1480만원이다.

한편 현대차는 2023 캐스퍼 출시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현대차는 인기 캐릭터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재산권) '콩야 레스토랑즈'와 협업해 '캐스퍼x양파콩야' 이모티콘을 출시하고, 캐스퍼 온라인(casper.hyundai.com)의 견적 페이지에 숨어 있는 '양파콩야' 캐릭터를 찾으면 이모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현대차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 '어바웃 현대' (about_hyundai)의 캐스퍼x양파콩야 콜라보 이벤트 게시물에 친구를 태그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한정판 차량용 방향제를 증정한다.

아울러 현대차는 출시일로부터 약 한 달간 홈플러스 5개 매장(강서점, 부천상동점, 원주점, 유성점, 김해점)에 캐스퍼를 특별 전시하고 당일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금 면제 쿠폰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운영한다. 견과류 브랜드 'HBAF(바프)'와 콜라보한 '허니버터 아몬드 캐스퍼 에디션'도 전국 홈플러스에서 판매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고객들을 위해 2023 캐스퍼를 출시했다"며 "실용적인 사양들을 조합한 경제적인 트림을 선보임으로써 고객에게 최적의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기차 닮은 신형 E-클래스...최첨단 디지털 담다

10세대 E클래스 이후 7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 공개...음악·게임·스트리밍 콘텐츠 경험

메르세데스-벤츠가 프리미엄 중형 세단 E클래스의 신형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W 214·이하 더 뉴 E클래스·사진)를 최근 공개했다.

더 뉴 E클래스는 2016년 출시된 10세대 E클래스(W213) 이후 7년 만에 나온 완전변경 모델이다. 1946년 출시된 벤츠의 핵심 모델 E-클래스의 유산에 개인화된 실내 공간을 구현하고 최첨단 디지털 편의 사양을 대거 탑재한 '럭셔리 비즈니스 세단'이다.

더 뉴 E클래스는 기술린·다절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과 4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로 출시된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통합 스타터 제너레이터(ISG)를 탑재해 가속 시 최대 15~17kW의 힘을 추가 제공한다. 더 뉴 E클래스 전 모델에는 ISG에 맞춰 개발된 9단 변속기가 장착됐다.

4세대 PHEV 모델은 한 번 충전으로 유럽(WLTP) 기준 최대 100km를 달릴 수 있으며, 최대 충전 출력은 95kW다.

외관은 짧은 프론트 오버행(차량 끝에서 바퀴 중심까지의 거리)과 긴 보닛의 조합으로 안정감을 갖



췌다고 벤츠는 설명했다. 휠베이스는 이전 모델보다 20mm 더 길어졌다.

보닛 측면과 앞·뒷바퀴, 문손잡이 등에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도입해 주행 시 차량의 공기저항을 0.23Cd(공기저항계수)까지 줄였다.

전면부에는 전기자인 EQ 모델과 닮은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했다.

기본 사양으로 발광다이오드(LED) 고성능 헤드램프가 제공되고, 도로 상황에 따라 헤드램프 픽셀 밝기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디지털 라이트'는 선택 사양이다.

실내는 스포터·고품질·디지털을 키워드로 디자

인됐으며, 차 안에서 음악, 게임, 스트리밍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3세대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BUX와 벤츠가 2025년께 신차에 정식 탑재할 전용 운영체제(MB.OS)의 선행 버전이 탑재됐다.

데이터 전송 기술로는 5세대 이동통신(5G) 모듈을 적용했다. 다만 시장 상황별로 관련 모듈은 달라질 수 있다.

더 뉴 E클래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외부 업체(서드파티) 앱도 이용할 수 있다. 차량 중앙 디스플레이에 게임이나 웹 브라우저, 업무용 앱 등을 띄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이폰과 애플워치가 자동차 열쇠를 대체하는 '디지털 키' 기능도 제공한다.

히터, 조영 등은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루틴' 기능을 통해 복잡한 조작 없이도 운전자의 습성에 맞게 한 번에 실행된다.

벤츠는 더 뉴 E클래스 한국시장 출시를 내년 초로 보고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독일 3사 중고차 1위는 '벤츠 E-클래스'

KB차차차 분석

KB캐피탈은 자사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가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찾는 독일 3사(벤츠, BMW, 아우디) 중고차 모델을 분석한 결과 벤츠 E-클래스가 1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벤츠 E-클래스 다음으로는 BMW 올 뉴 5시리

즈, BMW 뉴 3시리즈, BMW GT, 아우디 NEW A6가 매물 조희 2~5위를 차지했다.

작년 신차 판매량 순위가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벤츠 S-클래스, 아우디 A6, BMW X5 순이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BMW 뉴 3시리즈와 GT 차량이 상대적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선호 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KB캐피탈은 설명

했다.

연령대별 조희수 비율 1위는 20대 BMW 뉴 3시리즈(24.1%), 30대 BMW GT(38.2%), 40~50대 벤츠 뉴 S-클래스(각각 41.3%, 26.7%)가 각각 차지했다.

KB캐피탈 관계자는 "수입차는 가격대가 높아 금리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다소 열어 붙었던 중고차 시장이 점차 풀리면서 구매 의향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마세라티 'MC20' 강원 인제서 타보세요

출시 예정 그레칼레 트로페오 등 11~12일 고객 초청 트랙 이벤트

마세라티의 'MC20'과 '그레칼레 트로페오'를 트랙에서 직접 운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는 오는 11일과 12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스피디움'에서 고객 초청 트랙 이벤트 '마스터 마세라티 코리아 2023'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마스터 마세라티 코리아 2023'은 마세라티 브랜드를 대표하는 트랙 드라이빙 프로그램이다. VIP 고객들에게 브랜드 특유의 레이싱 헤리티지 속 특별한 주행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세라티는 이번 행사를 통해 역동적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드라이빙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경

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럭셔리 브랜드의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마세라티의 플래그십 모델인 'MC20 쿠페' 모델과 국내 출고 예정인 '그레칼레 트로페오'를 트랙에서 직접 주행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달 출고를 시작한 '그레칼레 GT'와 '그레칼레 모데나' 모델은 도로 주행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마스터 마세라티 코리아 2023'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국 마세라티 8개 전시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내 최대 단일차종 레이싱 '현대 N 페스티벌'

현대차, 10월까지 9R 진행

현대자동차는 모터스포츠 팬 모두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차종) 레이싱 대회 '현대 N 페스티벌'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는 '현대 클릭 스피드 페스티벌(2003~2010)'을 시작으로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2011~2018)'을 거쳐 '현대 N 페스티벌(2019~)'까지 약 20년간 국내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대회를 지속적으로 후원 및 개최해왔다.

2023 '현대 N 페스티벌'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KIC, 전라남도

영암 소재)에서 진행되는 1라운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9라운드로 스프린트 6라운드, 타임 트라이얼 3라운드로 분리 운영될 예정이다.

스프린트는 경주차들이 동시에 출발해 먼저 통과하는 순서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타임 트라이얼은 주어진 시간 가장 빠른 랩타임으로 순위를 매긴다.

현대 N 페스티벌 스프린트 대회는 '아반떼 N 컵'을 비롯해 '벨로스터 N 컵', '아반떼 N 라인 컵'으로 진행된다. N2 및 N3 클래스는 자신이 타던 벨로스터 N, 아반떼 N 라인 차량으로 참가할 수 있다. N1 클래스에서는 주니어 드라이버를 선발해 해외 모터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기아 K딜리버리 서비스 무상 제공

오늘~31일 왕복 1회

기아가 5월 한달 간 고객 성원에 대한 감사 이 벤트로 K딜리버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기아는 오늘부터 31일까지 토털예약센터(1899-0200)를 통해 오토류 서비스 협력사 정비를 예약한 고객에게 K딜리버리 서비스 왕복 1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K딜리버리 서비스는 오토류 방문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기아와 협력을 맺은 전문 탁송업체 인

력이 고객 희망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한 뒤 수리 완료된 차량을 다시 고객에게 인도하는 비대면 차량 정비 서비스이다.

도서관 및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편도 기준 30km 거리 이내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고객은 서비스 신청 후 30분, 도서관 지역은 1시간 이내로 전문 기사에게 차량을 인도할 수 있고 기사 배정 및 차량 이동 현황을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